

BTS, 10년 궤적 담은 다큐 디즈니+서 공개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통하는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 (BTS)이 걸어온 지난 10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난 21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다큐멘터리 '방탄소년단 모뉴먼츠: 비욘드 더 스타(BTS Monuments: Beyond The Star)'는 오는 12월 20일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에서 독점 공개된다.

다큐는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방탄소년단의 그간 여정을 담는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도달하기까지 겪은 일곱 멤버들의 수많은 고뇌와 도전, 일상과 속마음을 기록했다.

다큐 공개에 앞서 이날 방탄소년단 공식 소셜 미디어



▲ BTS의 10년 궤적 담은 다큐멘터리
공개 티저 포스터. 사진=빅히트뮤직

다큐는 공개 이후 매주 수요일 2편씩 공개되는 총 8개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에는 본정 영상이 게재됐다. "하나 하나의 감정들을 다 느꼈기 때문에..." (제이홉), "음악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슈가), "웃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뷔·지민), "딱 그 생각이 들었죠" (진), "이거는 됐다" (정국), "우리가 해냈다" (RM) 등 멤버들의 일부 인터뷰가 담겼다.

티저 포스터에도 이번 다큐 콘셉트가 담겼다.

빅히트 뮤직은 "어두운 공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마치 방탄소년단의 공식 로고를 떠올리게 하고, 그 너머에서 새롭게 펼쳐질 이들의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높인다"고 소개했다.

'라틴 팝 여왕' 샤키라, 스페인에서 거액의 '탈세 벌금'



▲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 사진=AP/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혐의로 스페인에서 기소된 '라틴 팝의 여왕' 샤키라가 지난 20일 스페인 검찰과 103억원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하고 실형 선고를 피했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샤키라는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에 첫 출석해 검찰과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샤키라는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3년과 미납 세금 1천450만 유로(약 1,530만 달러)의 절반인 730만 유로를 벌금으로 내기로 했다.

콜롬비아 출신의 샤키라는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의 '레전드 수비수' 였던 헤라르도 피케와 2011년부터 11년간 동거하며 아이 둘을 낳았다. 두 사람은 바르셀로나에 함께 살다가 지난해 피케가 다른 여성과 가까워지자 관계를 정리했다. 현재 샤키라는 미국 마이애미에 거주하고 있다.

2018년부터 샤키라의 탈세 혐의를 수사해온 스페인 검찰은 샤키라가 2012~2014년 중 절반 이상을 스페인에서 보낸 만큼 그의 공식 주거지가 바하마에 있더라도 스페인 정부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샤키라 측은 해당 기간에 연간 60일 이상 스페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월드 투어를 위해 바르셀로나를 장기간 떠나 있었고, 미국 NBC의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 '더 보이스'의 심사위원을 맡아 현지에 오래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블랙핑크 리사, 재벌 2세와 전용기 데이트



▲ 올해 초 리사(왼쪽)와 아르노가 한 공연장에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둘 사이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사진=인스타그램(blinkosz)

그룹 '블랙핑크' 리사(26)가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 CEO 프레드릭 아르노(28)와 데이트를 즐겼다.

지난 19일 중국 매체 시나에 따르면, 최근 리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아르노와 쇼핑 등을 했다.

이 매체는 "리사가 아르노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로 갔다"고 했다. 지난 7일은 아르노 생일이었다. 당시 리사는 현지 셀린느 매장에서 포착됐다. 리사는 이 브랜드 앱버서더를 맡고 있다. 두 사람은 한때 결별설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 시나의 전언이다.

두 사람은 올해 초 파리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며 열애설이 불거졌다. 소속사 YG엔터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아르노는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비통 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넷째 아들이다.

블랙핑크는 YG와 재계약을 논의 중이다. 최근 리사의 재계약 불발설, 제니·지수의 1인 기획사 설립설 등이 제기되는 등 블랙핑크가 YG와 그룹 활동을 이어 가지만, 개별 계약은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YG는 "협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낱말퍼즐 정답

¹ 예			² 대	³ 항	⁴ 마		
상		⁴ 발	설		⁵ 산	⁶ 유	⁷ 국
⁷ 외	⁸ 양	간		⁹ 부			¹⁰ 부
	동			¹¹ 탁	상	¹² 공	론
¹² 아	이	디	¹³ 어			무	
가			귀		¹⁴ 후	원	¹⁵ 자
¹⁶ 미	수	¹⁷ 금		¹⁸ 소	식		¹⁹ 신
			¹⁹ 성	균	관		감

9	3		4			7
1		5	8			
8		3	9	1		
	9		4	3		1
4	6				7	
7		9	3		4	
			7	9	5	
6	5		1			
9	4		3		6	